

성평등한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YWCA 회원 결의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여성들이다. 우리는 일제의 억압과 가부장제의 차별 아래에서 모든 생명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섰고, 억압과 어둠의 시대마다 "이제 생명을 택하라(신30:19)"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한 빛과 소금이였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깊은 불평등 속에 놓여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책임은 불공정하며, 죽음마저도 불평등하다. 기후위기는 생명보다 돈이 앞서고, 정의보다 이윤이 우선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 대신 착취가 반복된 결과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누군가의 삶이 더 위험해지는 사회는 결국 모두의 삶을 위협한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삶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돌봄은 특정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다. 위기 앞에서 자원을 나누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며, 차별과 혐오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효율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돌본다.

하나. 탄소를 줄이는 먹거리를 선택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

하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 기후정책이 수립되도록 행동한다.

하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삶에 기반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기후재난의 예방·보호·복구·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하나. 기후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기후시민들과 연대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 결의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임을 믿는다.

지금 여기, 나로부터 출발해 지역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2026년 2월 26일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사)강릉YWCA, (사)거제YWCA, (사)고양YWCA, (사)광양YWCA, (사)광주YWCA,

(사)군산YWCA, (사)김해YWCA, (사)남양주YWCA, (사)남원YWCA, (사)논산YWCA,

(사)대구YWCA, (사)대전YWCA, (사)동해YWCA, (사)마산YWCA, (사)목포YWCA,
(사)부산YWCA, (사)부천YWCA, (사)사천YWCA, (사)서귀포YWCA, (사)서울YWCA,
(사)성남YWCA, (사)세종YWCA, (사)속초YWCA, (사)수원YWCA, (사)순천YWCA,
(사)안동YWCA, (사)안산YWCA,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사)양산YWCA, (사)여수YWCA,
(사)울산YWCA, (사)원주YWCA, (사)의정부YWCA, (사)익산YWCA,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제천YWCA, (사)진주YWCA, (사)진해YWCA,
(사)창원YWCA, (사)천안YWCA, (사)청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통영YWCA, (사)파주YWCA, (사)평택YWCA, (사)포항YWCA, (사)하남YWCA